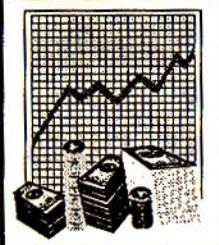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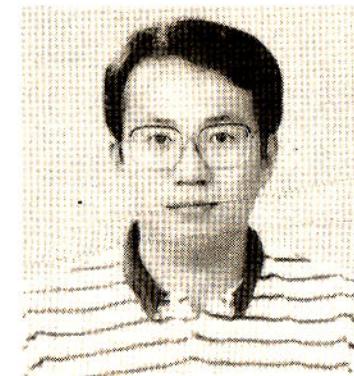
經濟人 手帖



##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 運(?)

김영수 (경제학박사)



제갈공명은 '諸葛 武侯 馬上占'이라는 간단한 점치는 방법을 만들어, 자기가 옆에 없을 때, 쓰시라고 유비에게 헌납한 사실도 있고, 한국의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들 중에서 약간 유식한 패들은 이 '제갈무후마상점'을 아직도 치고 있다. 관련하여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여야 하는데, 바로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다. 필자는 기업의 핵심이라는 금융의 문제를 다루므로, 필자가 컨설팅을 시작하고 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취하여야 하는 여러 조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사람으로 치면, 뇌수술같은 것을 기업에 대고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자를 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느 누구도 아닌 최고 경영자가 결정하여야하는 것인데, 필자의 분야가 원창 좁은 분야가 되어놓으니, 어데가서 물어볼 곳도 없을 것이고, 그

렇다고 설불리 고용을 하자니, 자칫하였다가는 회사가 아주 망해버리겠고, 또, (필자의 못된 버릇때문이긴 하지만) 달라고 요구하는 액수는 엄청나고... 사실 필자를 고용하는가, 하지 말 것인가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큰 결정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와 접촉한 많은 고객들이 그 '도사님'들에게 물어보고 '필자에게 컨설팅 공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분은 貴

인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잡아라'라는 神通한 점괘가 나오면 그 고객은 필자에게 금융동원 컨설팅을 맡기시는 것이고, '이 사람은 당신과 떠가 낫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점괘가 나오면, 필자는 공사를 못 따른 아었나. 필자기 무슨 학교를 나왔건, 필자가 어떤 것을 전공을 하였건 필자가 잘 생겼건...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단, 필자가 요구하는 액수 그리고, 도사님의 말씀... 이 두 가지 변수가 필자의 생계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할 때,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경우가 왕왕 있었다. 약하디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다. 수만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십개의 회사를 가지고도, 인간은 매순간 매순간 그렇게 약한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내일' 하시면 바로 내일인 것이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필자의 파트너중 한 분은 엠아티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는 분이 계시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오신 분이라고 하면 대강 어떤 분인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분은 하나님을 아주 심하게 믿으시는 분이다.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저 친구는 예수믿고 둘았어...'라는 소리를 할 정도의 열렬한 신자이신데, 이 분이 월스트리트에서 그 사장들이 신봉하는 점성술의 대가라고 하면 놀래시는 분들이 많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성술을 해? 이것이 엉터리 아니야? 그런데, 그 연유를 들으려면 꽤 그공께 간단하게 墓倒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듈다. 이 분의 논리인즉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우리와 투자게임을 벌리는 상대방들, 그 사람들의 투자는 점성술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투자 패턴을 알아내려면, 점성술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부하다보니 다른 사람보다 잘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 얼마나 정연한 논리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즉, 점성술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성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추측해 내고 그 사

람들과의 돈싸움에서 이기는데 필요하니까 점성술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하긴 곰곰히 생각해 보면, 예수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도, 감빨리 잡고 찾아와서 敬拜를 드린 사람들은 동방의 占星術師들이었지, 유태의 윤법학자들이 아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필자가 필자의 고객 만나러 갈때에도, 이 고객이 찾아갈 도사님의 점괘를 미리 알아보고, 거기에 맞추어 비즈нес 프로포osal을 넣어보면 백발백중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하여간, 점성술과 월스트리트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리도 하나 나을 만큼 여러 복잡한 이론도 많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도 많다.

운 생각이 나지 않을 성노로, 즉 寶天命 해야 할 정도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즉, 盡人事하지 않으면, 아예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고, 또 결손하고 착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이 따르는가보다 정도로 요약하고 묘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자.

<다음호부터는 "못 할 짓하기">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대표 682-8686-